

문화



최근 '저 별이 위험하다'를 함께 무대에 올린 연극인 가족 오성완·오새희·이담금씨. 극단 대표인 아빠와 딸은 연기자로 참여했고 엄마는 연출을 맡았다. /니렁주기자 mjna@kwangju.co.kr

# 아빠 엄마 그리고 새희... 우리는 연극가족

■ 푸른연극마을 '저 별이 위험하다'

엄마는 연출, 극단 대표 아빠와 딸은 배우로

연극인생 25년, 오성완·이담금씨네 '눈길'

지난 26일 광주콘텐츠평산발전센터 영상관(옛 KBS 광주방송 송국 자리)에서는 푸른연극마을의 '저 별이 위험하다' 공연이 열렸다. 지구별을 찾아온 천사 소녀와 지구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 소녀 역을 맡은 오새희(17·광주여고 1년)와 이담금씨(17·광주여고 1년)가 주인공을 맡았다.

1시간 30분에 달하는 작품에서 새희양은 거의 전 장면에 출연하며 주인공 역할을 거뜬히 책임졌다. 푸른연극마을이 진행하는 청소년연극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새희양은 이전에 단역으로 한두작품 출연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주역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새희양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이들이 있다. 바로 푸른연극마을 대표 오성완씨와 연극배우 이담금씨. 새희양은 두 사람의 외동딸이다. 이번 작품에서 극단 대표인 아빠는 배우로 딸과 함께 무대에 섰고, 엄마는 연출을 맡았다. 온 가족이 연극에 참여한 셈.

새희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연극과 함께였다. 지역연극계에서 힘들게 작업을 해온 부모와 극장에서 세트 치우고, 잠을 자는 그런 시절들도 많았다. 엄마 아빠가 연극 연습을 할 때면 무대 주변, 객석에서 혼자서 잘도 놀았다.

4살 때는 박효선씨의 유작인 '레드 블릭'

에 출연하기도 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5월을 다룬 '꿈 어린달은 날'이라는 작품에서 시낭송을 했었다.

사실, 이번에 덜컥 주인공 역을 맡게 됐을 때는 부담감도 많았다.

"워낙 중요한 역할이라 부담도 되고 그랬어요. 출연 분량도 많은데다 구르고 뛰고 계속 움직여야 해서 힘든 부분도 많았죠. 또 엄마 아빠가 저 혼자 답을 찾아가며 연기를 만들어가도록 해서 무척 어려웠죠. 다른 친구들처럼 일일이 가르쳐 주기 보다는 "너가 이 대목을 어떻게 연기할 것인지 만들어와" 하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게 큰 공부가 됐어요."

연습이 되지 않을 때는 평평 울기도 했지만 청소년연극교실 친구들과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나니 뿌듯함이 느껴졌다. 연출을 맡았던 이담금씨는 "새희가 무대 셋업이나 이런 과정들을 늘 보며 연극과 함께여서인지 무대에서 많이 떨지 않았다"며 남자 주인공 유건우(송일고 1년)군과 함께 5차례 공연에서 큰 실수 한번 없었다고 말했다.

주인공을 시켜놓고 오씨 부부는 내심 걱정이 많았다. 공연 내내 무대 뒤쪽에서 딸을 지켜봤던 오씨는 배우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점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함께 무대에 서는 장면에서는 애드립을 치며 잘 따라와 뿌듯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170cm의 늘씬한 몸매를 갖고 있는 새희양은 주변에서 모델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고 1 꿈많은 소녀라 아직 진로를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많다.

"좋은 워낙 좋아해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오래 오래 출거예요. 이번 작품에서도 혼자 춤추는 장면이 가장 좋았거든요(웃음) 연기도 하고 싶고, 연극 작품도 만들고 싶고, 모델도 하고 싶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장에도 많이 데려가시는데 그게 참 좋아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씨는 새희가 연극인으로 활동했다면 바란다고 말했다.

"힘든 세월을 견뎌내 준 게 고맙고 대견하죠. 전 연극계가 어려워도 새희가 제 일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조금 다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웃음). 너무 오랫동안 연극 현장을 봐오서 새희가 '무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질려서 직업으로는 삼키지 않든지, 아니면 이미 피에 스며 있고 체질화가 되어서 자연스레 이 길을 걸든지(웃음)"(오성완)

새희양은 오디션을 거쳐 오는 12월말에 푸른연극마을이 진행하는 '새로움과 신감각 연극 페스티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201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선정 단체인 푸른연극마을은 오는 11월 9일~18일 장아누이 작 '안티고네'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연극 있다-빛다' 페퍼토리 상설 공연 시리즈로 마련한 이번 작품에는 양현철씨가 각색과 연출로 참여, 광주 관객들에게 첫 작품을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트랜스지방 제로 "300만원짜리 치킨 사세요"

'통닭 사기 싫분~!'

광주비엔날레가 '치킨'도 판다. 비좁은 배달 전문용 매장도 아닌, 600평형이 넘는 비엔날레 2 전시실에서 '대놓고' 판다. 세련된 인테리어로 한껏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 가족과 안락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처럼 메뉴도 다양하다. 짧은 관람객 뿐만 아니라 지긋한 중년층까지 고려, 종류만 12가지나 된다.

작가 스스로 "이럴 때 좋은 일 좀 해보고 싶다"며 내놓은 작품은 종이찰흙으로 빚은 통닭 모양이다. '작품과 치킨을 바꿔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돈 없던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구상했다는 후문이다.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통닭부터 반듯반듯 잘 다듬어 놓은 통닭 등 12가지 종류로 빚었다. 한 마리당 판매가는 300만원.

내놓은 작품이 팔리면 판매액 전액을

안 제곱할 지는 검토중이다. 작가는 특정 시설을 정해 6개월, 1년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좋은지, 한 번이라도 광주 전 지역 복지시설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비엔날레재단측은 북구 드림스타트센터와 협의를 거쳐 작가의 의도를 반영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통닭 한 마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작품 외에도 수십 명 아이들을 배울리 먹일 수 있다는 '포만감'에 '나눔의 기회'까지 함께 갖게 되는 셈이다.

전시 시작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입소문이 나면서 갤러리 등을 중심으로 구입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비엔날레측 설명이다.

김범씨가 조각가 고 김세중(1928~1986)과 시인 김남조씨의 아들로, 석남미술상(1995),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1), 선미술상(2007) 등을 수상하며 그 역량을 인정받은 데다, 회화,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면서 독보적 영역을 구축해온 실력있는 작가라는 평가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한편, 김범씨는 이번 비엔날레 때 '12가지의 조각적 조리법' 외에도 '노란 비명'(yellow scream), '친숙한 고통 #12' 등 2점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엔날레 참여작가 김범씨 작품 '12가지의 조각적 조리법'

작품 팔아 복지시설·다문화가정 아이들에 치킨 쿠폰 지급

또 기쁨기가 아예 없어 트랜스지방 '제로'를 선안한 웰빙 트렌드에 조리과정이 없어 냄새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갓 만들어낸 신선함도 갖췄고 오래 놓아둬도 상할 염려가 없다. 단, 비엔날레 기간에만 파는 한정 메뉴라 선착순으로 주문을 받는다.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참여작가인 김범(49)씨가 내놓은 '12가지의 조각적 조리법'이라는 작품이다.

통닭 쿠폰으로 바꿔 지역 복지시설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어요"라고 할 때 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돈이 아닌, 치킨 쿠폰으로 주겠다는 계획이다. '착한' 작가의 발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이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수줍어하면서도 직접 비엔날레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쿠폰으로 바꿔주는 데 인색하지 않은 치킨집도 물색해냈다.

다만, 어떤 아이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 '사립미술관 승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

사립미술관장들 참여, 내달 5일 의재미술관

한국사립미술관협회(회장 이명옥)는 다음달 5일 광주시 동구 의재미술관에서 전국 사립미술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립미술관 승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미술관의 공동 발전을 통해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자산의 영속을 위한 사립미술관 승계 방안'이라는 의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회자로 나서 사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로드맵과 각종 정보, 사례를 제시한다.

하계훈 단국대 교수는 '미술관 승계에 대한 현황과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김성규 한미회계법인대표는 '미술관 승계의 리스크와 핵심 이슈', 김동준 법무법인 중부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본 사립미술관의 승계 문제'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문의 02-736-403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인문학 시리즈 '이슈북'

첫 권, 함세웅 '겉데기는 가라'

인문학의 생생한 이슈를 100쪽 내외로 간략하게 압축한 시리즈가 선보인다.

출판그룹 문학동네의 계열사인 알마출판사는 인문학 시리즈 '이슈북'을 기획하고 첫 번째 책으로 함세웅 신부와 진보 논객 손석춘 건국대 교수의 대답을 담은 '겉데기는 가라'를 발간했다고 28일 전했다.

알마는 "'이슈북'은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나 기초 지식이 부족해 접근을 망설이는 독자를 위해 기획했다"며 "철학,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CBS 방송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 일시 2012년 8월 30일(목) 12:00 ~ 13:30

○ 진행 광주순복음교회 임 석 명 목사



- \* 순복음선교회 선교사(파라과이)
- \* 여의도순복음교회 용산대교구장 역임
- \* (사)실업인선교회연합회 담임목사 역임
- \* 순복음영산신학원 교수역임
- \* 광주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참여 방법

휴대전화 문자 #1031번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T. 062-376-8555-8666-8777

